

10여년 이상 업계의 노력으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노하우가 축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번 지원사업에서 중국시장이 선호하는 장르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 다수 등장하였고, 중국의 유력 플랫폼과 애니메이션, 드라마 등 영상화 관련 부가사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COVID-19로 단절되었던 한중콘텐츠 비즈니스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IP의 부가사업으로 확장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한 단계 진일보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